IV  
  
Findings in a Case of Schizophrenic Depression\*

조현병적 우울증 사례의 연구 결과   
저자: Eugene Minkowski

**" Translated by Barbara Bliss . "Etude psychologique et analyse phenomdnologique d'un cas de melancolie sdiizophrenique," first published in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Vol. 20, 1923, pp. 543-558; re-edited in slightly condensed form in Le Temps Vicu (Paris: J. L. L. d’ Artrey, 1933), pp. 169-181.**

\* 번역: Barbara Bliss. “조현병적 우울증 사례의 심리학적 연구와 현상학적 분석,” 최초로 발표된 곳: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제20권, 1923년, 543-558쪽; 다소 요약된 형태로 재편집된 곳: Le Temps Vicu (파리: J. L. L. d’Artrey, 1933년), 169-181쪽."

**In the year 1922, a stroke of good luck—or, more exactly, life’s vicissitudes—obliged me to spend two months as the personal physician of a patient. I was with him constantly, night and day. It is not difficult to imagine the unpleasant moments that such a symbiosis presents, but on the other hand it creates special conditions for the observer and gives him the possibility, by permitting him constantly to compare his own and the patient’s psyche, of noting certain particularities that ordinarily escape attention.**

1922년, 나는 운이 좋게도 - 더 정확히 말하자면 -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하여 두 달 동안 한 환자의 개인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나는 그 환자와 함께 밤낮을 지속해서 보냈다. 이러한 공생적 관계가 초래하는 불쾌한 순간들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나의 심리와 환자의 심리를 끊임없이 비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할 환자의 특이점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Briefly, here is the clinical picture. The patient was a of sixty-six who presented a depressive psychosis accompanied by delusions of persecution and extensive interpretations.**

간략히 말하면, 다음이 이 환자의 임상적 상황이다**.** 환자는 66세의 남성으로, 피해망상과 광범위한 망상적 해석이 동반된 우울증적 정신증을 보였다.

**The patient expressed thoughts of guilt and ruin. A foreigner, he reproached himself for not having chosen French citizenship, seeing therein a heinous crime; he also stated that he had not paid his taxes and that he no longer had any money.** He believed that **an atrocious punishment awaited him as a result of his crimes. He believed that His family would have their arms and legs cut off and would then be exposed in some arid field. He believed that the same would happen to him; he would have a nail driven into his head and all sorts of garbage would be poured into his belly. He believed that Mutilated in the most horrible manner, he would be led, in the middle of a parade, to a fair and condemned to live, covered with vermin, in a cage with wild beasts or with the rats of the sewers until death overtook him. All the world was cognizant of his crimes and the punishment which awaited him; for that matter, everyone, with the exception of his family, would play some role therein. People looked oddly at him in the street, his servants were paid to spy on him and betray him, every newspaper article was directed at him, and books had been printed solely against him and his family. At the head of this vast movement against him was the medical corps.**

환자는 죄책감과 몰락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다. 외국인인 그는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을 자책했으며, 이를 흉악한 범죄로 여겼다. 또한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이제 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참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의 가족은 팔다리가 잘린 후 메마른 들판에 버려질 처지였으며, 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자기 머리에는 못이 박히고 갖가지 쓰레기가 그의 배 속에 쏟아질 운명이었다. 그는 자기 신체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훼손된 채로 어느 축제에 이끌려가 유린당하고, 벌레로 뒤덮인 채 동물이나 하수구의 쥐들과 함께 케이지 안에서 죽음이 그를 덮쳐올 때까지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믿었다. 전 세계가 그의 범죄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처벌에 대해 알고 있고,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가 이 처벌에 관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그의 하인들은 그를 감시하고 배신하기 위해 돈을 받았으며, 모든 신문 기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었고, 오직 그와 그의 가족을 반대하는 책들만 출판되었다고 환자는 얘기했다. 그에 따르면 이 거대한 모함의 선두에는 의료진이 자리했다.

**These ideas of guilt, ruin, imminent punishment, and persecution were accompanied by interpretations of a really surprising scope. This was the “residue politics” (politique des restes), as he called it - a political system that had been instituted especially for him. Every leftover, all residue, would be put aside to be one day stuffed into his abdomen - and this, from all over the world. Everything would be included without exception. When one smoked, there would be the burnt match, the ashes, and the cigarette butt. At meals, he was preoccupied with the crumbs, the fruit pits, the chicken bones, the wine or water at the bottom of the glasses. The egg, he said, was his worst enemy because of the shell—it was also the expression of the great anger of his persecutors. When one sewed, there would be bits of thread and needles. All the matches, strings, bits of paper, and pieces of glass that he saw while walking in the street were meant for him. After that came nail parings and hair clippings, empty bottles, letters and envelopes, subway tickets, address-bands, the dust that one brought in on one’s shoes, bath water, the garbage from the kitchen and from all the restaurants of France, etc. Then it was rotten fruit and vegetables, cadavers of animals and men, the urine and feces of horses. “Whoever speaks of a clock,” he would tell us, “speaks of the hands, cogs, springs, case, pendulum, etc.” And all this he would have to swallow. In sum, these interpretations were boundless; they included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that he saw or imagined. In these conditions,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smallest thing, the most minute act of daily life, was immediately interpreted as being hostile to him.**

이러한 죄책감, 몰락, 임박한 처벌, 박해에 대한 생각들은 놀라운 범위의 해석을 동반했다. 그것은 그가 ‘잔여 정치’ (*politique des restes*) 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는 오직 그를 위해 제정된 정치 체계였다. 이 체계는 모든 잔여물과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모아두었다가 언젠가는 그의 복부에 채워 넣을 것이었다. 이 잔여물에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누군가 담배를 피울 때면 그는 탄 성냥, 재, 담배꽁초에, 식사할 때는 부스러기, 과일 씨, 닭 뼈, 컵 바닥의 와인이나 물에 집착했다. 환자는 달걀의 껍데기 때문에 달걀이 자신의 최악의 적이라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달걀을 그의 박해자들의 큰 분노의 표현이라고 얘기했다. 누군가 바느질을 할 때면 그는 실타래와 바늘에 신경을 썼고, 길을 걷다가 보는 성냥개비, 끈 조각, 종이 조각, 유리 조각들은 모두 그를 위한 잔여물이었다. 이 잔여물에는 손톱깎이와 머리카락, 빈 병들, 편지와 봉투, 지하철표, 주소지, 신발에 묻은 먼지, 목욕물, 부엌과 프랑스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쓰레기 등이 있었고, 그다음으로는 썩은 과일과 채소, 동물과 사람의 시체, 말의 소변과 대변이 포함되었다. “누군가 시계에 관해 얘기하면” -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 “그 사람은 시곗바늘, 톱니바퀴, 스프링, 케이스, 진자 등을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환자에 따르면 그는 이 모든 잔여물을 삼켜야만 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해석은 끝이 없었고, 그가 보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을 포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소한 것, 가장 미세한 행위도 즉시 그에게 적대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Such was the clinical picture. Actually, it does not present anything particularly extraordinary unless it would be the scope, we would even say the universality, of his delusions of persecution and his interpretations. This universal character of the morbid manifestations is, however, an unquestionable advantage when we wish to penetrate the very nature of psychopathological phenomena. When these phenomena are limited to certain persons or objects, we first look for an explanation for this elective character. Why does the patient feel that this person persecutes him instead of another; why does he, in his delirium, attribute a particular importance to this thing instead of that one? Such are the questions that face us then. It is the content of the delusion or hallucination that attracts our attention, and it is there that the affective factors, the complexes and the symbolism that play such a great role in modem psychiatry, enter in. On the other hand, the cases where the content of the morbid phenomenon is in no way limited but has a universal character lend themselves better, I submit，to the study of a phenomenon as such; of the delusion, for example, as a phenomenon which is specific and unique.**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임상적 상황이다. 사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으나, 환자의 박해 망상과 해석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그것들의 보편성에서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병적인 현상의 보편적 특성은 정신 병리적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자 할 때 의심할 여지 없는 이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어느 정신 병리적 현상이 특정인이나 특정한 객체에 국한될 때 이 선택적 특이성에 대한 설명을 찾게 된다. 왜 환자는 다른 사람 대신 특정 사람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느끼는가? 왜 환자는 망상 속에서 다른 것 대신 특정한 사물에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찰이 병적인 특이성에 국한될 때] 우리가 당면한 질문들이다. 이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망상이나 환각의 내용이며, 바로 그곳에 현대 정신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적 요소, 콤플렉스, 상징주의 등이 개입한다. 반면, 병적 현상의 내용이 보편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현상 그 자체’의 연구에 더 잘 부합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망상 현상을 구체적이고 고유한 현상으로서 연구하는 것이다.

**Although my patient’s case is relatively banal from a clinical point of view, this can hardly be said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I was able to study him. I have already said that I lived with him for two months. Thus, I had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him from day to day, not in a mental hospital or sanitarium, but in an ordinary environment. His way of reacting to the habitual external stimuli, his ability to adapt himself to the exigencies of daily life, the variability of his symptoms and their particular nuances come much more clearly to life under such conditions. To this must be added another point. We are unable to conserve a professional attitude twenty-four hours a day. We, too, react to the patient as do the other persons of his environment. Compassion, mildness, persuasion, impatience, and anger appear one by one. Thus it was that, in the above circumstances, I was not only able to observe the patient but also at almost each instant I had the possibility of comparing his psychic life and mine. It was like two melodies being played simultaneously; although these two melodies are as unharmonious as possible, nevertheless, a certain balance becomes established between the notes of the one and the other and permits us to penetrate a bit more deeply into our patient’s psyche. The findings that were thus noted are on one hand psychological, on the other, phenomenological.**

비록 내 환자의 사례가 임상적 관점에서 비교적 평범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연구할 수 있었던 상황은 결코 그렇게 평범하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나는 그와 두 달 동안 함께 지냈다. 따라서 나는 정신병원이나 요양소가 아닌, 보통의 환경에서 그를 날마다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상적인 외부 자극에 대한 그의 반응 방식, 일상생활의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 증상의 변화 및 그들의 특별한 뉘앙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도 그의 주변 사람들처럼 환자에게 반응한다. 연민, 온화함, 설득, 조바심, 분노가 차례로 드러난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 나는 환자를 관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순간 그의 정신생활과 나 자신의 정신생활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시에 연주되는 두 개의 멜로디와 같았다. 비록 이 두 멜로디가 조화롭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이 두 멜로디 음 사이에 자리 잡게 되어 환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된 발견들은 한편으로는 심리학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적이다.

***I. Psychological Findings—Alternating of Attitudes and Extension of the Delirium***

*I. 심리학적 발견 – 태도의 변화와 망상의 범위*

**We have already outlined the clinical picture. The patient, however, did not invariably present the same tableau. We are not referring here to the fact that occasionally he behaved as a normal individual, taking part in the general conversation and in no way betraying his pathology. Our attention was much more drawn by the fact that in the area of his symptoms variations and changes occurr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From the first, two different attitudes could be distinguished: now the depressive element was dominant, now it was the delusional and delirious patient that we saw before us. The alternating of these two main attitudes did not come about in an entirely disorganized fashion; on the contrary, it seemed to be determined at least partially by specific factors and to be subservient to precise motives. Here it is useful to confront the two melodies that I mentioned above. When, after a more or less violent scene, one felt the need to relax，and I, personally, wanted to tell my partner, “Okay, let’s make peace,” he would almost invariably react with an episode of simple depression. He would pity himself, list his misfortunes, and call on our compassion; the interpretations, on the other hand, scarcely entered the picture. It was as if, in so doing, he dug out of his arsenal of pathological attitudes the one which could be used to establish a certain contact with his fellow man. As he repeated his melancholic complaints and cries of suffering, they no longer moved us; nevertheless, they remained his “contact attitude” in our symbiosis. These were, in his pathological psyche, the last-ditch defenses of his syntonism. With reference to the contact with the environment, the attitude of the delusional, interpreting patient was obviously completely different. Then, often, he accused me personally. He could not stand my perfidy; on one hand, I was as friendly as could be with his family, but on the other, I was an active conspirator in the plot being woven against him. One day that my children came to visit me, I was supposed to have purposely had them bring a coin purse with some change in it; these coins, now, would also be put into his belly; it was shameful to make one’s own children take part in such inhuman goings-on. Finally, he called me a murderer and gratified me with the name of *Deibler*. At that point, everything fell apart; nothing remained except two people who could no longer understand each other and, as a result, were hostile toward one another I became angry. He translated his anger in his personal manner, adopting an antisocial attitude. He accused me of the most evil deeds, then, as if purposely, went to the garden and picked up every string and match stick that he could find.**

이미 위에서 우리는 임상적 상황을 대략 제시했다. 그러나 환자가 일관되게 같은 정신 병리적 증상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때때로 일반적인 대화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자신의 병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끈 것은 그의 증상 영역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와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다른 태도가 구별될 수 있다. 때로는 우울 요소가 지배적이었고, 때로는 우리 앞에 망상적이고 환각적인 환자가 나타났다. 이 두 주된 태도의 변동은 완전히 무질서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그것은 특정 요인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동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멜로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소 격렬한 상황 이후 분위기의 이완이 필요한 순간을 느낄 때, 개인적으로 내가 내 동료에게 “좋아, 화해하자”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그는 거의 예외 없이 단순한 우울증의 에피소드로 반응했다. 그는 자신을 연민하며 자신의 불운을 나열하고 우리에게 동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망상적] 해석들은 이러한 그의 반응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는 병적인 태도로 가득 찬 자신의 무기고에서 동료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립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같았다. 그가 우울한 불만과 고통의 외침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것들은 나와 환자의 공생관계 속에서 그의 ‘소통 태도’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병적 심리 속에서 그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감정적 평형을 [syntonism]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환자가 취하는 망상적인 태도와는 분명히 전혀 달랐다. 이럴때면 그는 빈번히 개인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나의 배반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의 가족에게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짜인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음모자였다. 어느 날 내 아이들이 나를 방문하러 왔을 때, 그에 따르면 나는 일부러 그들에게 동전 몇 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오게 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동전들도 그의 배에 넣어질 것이었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했다. 마침내 그는 나를 살인자로 부르고 나에게 ‘*데이브레르*’ [Deibler; 프랑스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 라는 이름을 베풀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로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되었으며 나는 화를 냈다. 그는 반-사회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의 개인적인 방식대로 분노를 표현했다. 나를 가장 악한 행위로 고발했고, 그는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원으로 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줄과 성냥개비를 줍기 시작했다.

**The alternating of symptoms and their various forms establishes thusly a sort of current which runs between normal life and the pathological psyche. It is like the ebb and flow of the sea; now it is calm and the prevalent attitude is one of contact—one cannot keep from feeling an upsurge of hope; now it is a high sea, everything tearing loose, and once again all is submerged.**

이러한 증상의 변동과 이들의 여러 형태는 정상적인 생활과 병적인 심리 사이에 일종의 흐름을 형성해 냈다. 이는 마치 바다의 조수처럼, 때로는 잔잔하여 소통이 주된 태도가 되기도 하고 - 이러한 순간엔 나는 벅차오르는 희망을 참을 수 없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 모든 것이 흐트러져 또다시 모든 것이 잠기게 된다.

**Besides this alternating of attitudes, a certain intellectual activity was evident concerning his delusions, and this activity brought a hint of life into the shadows of his ill personality. It had a special character, aiming at going over absolutely every object that might be put in his belly. I carelessly took a subway ticket from my pocket “Hey,” he said, “I hadn’t yet thought about tickets.” Then he would talk about train tickets, streetcar tickets, tickets for buses, the subway, etc. This question would preoccupy him for several days and, afterwards, would be brought up again from time to time in his conversation as a brief reminder. This, “My, I hadn’t yet thought of that,” was repeated at each item that he thought he had forgotten until then. Moreover, with the same aim he named all the things that he saw around him or listed all the forms of the same general class of things. When germs happened to be mentioned, he listed all the microbes that he knew—those causing rabies, typhus, cholera, tuberculosis, and so forth. All of this would be stuffed down him. On another occasion it was acids that he ticked off- hydrochloric, sulfuric, oxalic, acetic, nitric, etc.—all with the same tone of voice. In this way, he pursued an intangible goal—to go through all the possible and imaginable objects in the universe. As he said, “That leads toward infinity.” We will have occasion to bring this up again. For that matter, this activity was not limited to the above enumerations, and a certain retrospective work went on at the same time. Perhaps he might think of a hair-box in some barber shop that he once patronized; hair clippings were thrown into it, and now he was terrified to think of the mass of hair that must have been put aside for him. Another time, he might remember some dinner to which he had invited many friends; he would calculate how many eggs must have been used that day. At all costs, he wanted to know how long the “residue politics” had been in force.**

이러한 태도의 변동 외에도 그의 망상은 어떠한 지적 활동을 분명히 나타냈고, 이것은 그의 병리적 성격의 그림자 속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지적 활동은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배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물체를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내가 부주의하게 지하철표를 내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아, 아직 표해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구나’. 그러고 나서 그는 며칠 동안 기차표, 전차표, 버스표, 지하철표 등에 대해 골몰하였고, 그 후에는 그의 대화에서 간단한 참고로 가끔 다시 언급되었다. 이 ‘아, 나는 아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구나’는 그가 그때까지 잊었다고 생각한 물품마다 반복되었다.같은 목적으로 그는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명명하였고 동일한 일반적인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나열했다. 우연히 미생물이 언급되었을 땐 그는 그가 아는 모든 미생물 - 광견병,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등 - 을 나열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쑤셔 넣어질 예정이었다. 또 어떤 때는 그는 모두 같은 어조로 산들을 열거했는데 이것들엔 염산, 황상, 옥살산, 초산, 질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물체들을 나열하고 명명하는 이뤄질 수 없는 목표를 추구했다. 그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이러한 지적 행동은]무한으로 뻗쳐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물체들을 열거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일종의 회고적인 작업도 같이 진행했다. 그는 한때 자주 다녔던 이발소의 헤어 박스를 생각해 낼 때면 그 안에 자신을 위해 치워진 머리카락의 양을 생각해 내며 공포를 느꼈다. 다른 때에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그날 사용된 달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잔여 정치”가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했다.

**There were still other problems that preoccupied him and that lent a more vivid note to the exasperating monotony of his stream of thought. Some of these problems were tinged with reality. For example, his “residue politics” would obviously necessitate enormous expenditures. All the bits of string and broken glass that had first to be put in his way and later collected again, the newspapers that had to be bought, and the books that had to be published—what a sum that must amount to! He supposed that donations were being requested all over France, as well as secret governmental funds being appropriated. He wondered, too, how they would manage to stuff all the canes and umbrellas into his stomach; “there my reasoning fails me,” he would say. Then he found the solution: he would be made to absorb only a bit of each thing and the rest would be arranged around him when he was exposed to public derision in some side show.**

그는 이러한 답답하고 단조로운 생각의 흐름을 깨는 문제들에 사로잡혀있었다. 이 문제 중 일부는 현실을 반영하는 색채를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의 ‘잔여 정치’는 명백히 거액의 지출이 필요할 것이었다. 그의 앞에 먼저 놓이고 나중에 다시 수거해야 할 모든 실과 깨진 유리 조각들, [그를 비난하는] 신문들과 출판되어야 할 책들 –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금액이 될 것인지! 그는 프랑스 전역에서 기부금이 요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 정부 자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모든 지팡이와 우산을 어떻게 그의 배 안에 넣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의 추론은 실패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는 각각의 잔여물 중 조금씩만 먹게 되고나머지는 대중의 조롱을 받게 될 때 그의 주변에 전시될 예정이었다.

***II. Phenomenological Findings***

*II. 현상학적 발견*

**So it was that our patient’s daily life was spent. *But where, exactly, is the discordance between his psyche and our own?* This question leads us to a study of the phenomenological findings**

그렇게 우리 환자의 일상은 흘러갔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의 심리와 그의 심리 사이의 불일치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현상학적 연구로 이끈다.

**From the first glance, it is obvious that his mental processes were quite different from our own; because of the delusions, this difference may even seem so great as to make us doubt whether there can be any correlation. However, we cannot be satisfied with such an attitude o£ psychiatric agnosticism. Modem psychiatry, aided by the psychology of complexes, has already demonstrated that many morbid symptoms can be traced back to normal drives and thus made intelligible. However, as we have already pointed out, most of these studies have been concerned with content. Here, our aim is quite different. We are trying to gain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athological phenomenon itself by asking, for example, what is a delusion? Is it really nothing but a disorder of perception and ofjudgment? This brings us back to our present problem — namely, where is the discordance between the patient's psyche and our own?**

표면상 그의 정신 과정이 우리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망상으로 인해 이 차이는 우리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신과적 불가지론의 태도에 만족할 수 없다. 현대 정신의학은 콤플렉스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도움을 받아 많은 병리적 증상이 정상적인 욕구로 환원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병리적 증상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망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단지 인지와 판단의 장애일 뿐인지를 물어보는 것과 같이 병리학적 현상 자체의 본질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얻으려 한다. 이것은 우리의 분석을 위에 제기한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 즉, 환자의 심리와 우리 자신의 심리 사이에 불일치가 어디에 있는가?

**From the first day of my life with the patient, my attention was drawn to the following point When I arrived, he stated that his execution would certainly take place that night; in his terror, unable to sleep, he also kept me awake all that night. I comforted myself with the thought that, come the morning, he would see that all his fears had been in vain. How­ ever, the same scene was repeated the next day and the next, until after three or four days I had given up hope, whereas his attitude had not budged one iota. What had happened? It was simply that I, as a normal human being, had rapidly drawn from the observed facts my conclusions about the future. He, on the other hand, had let the same facts go by him, totally unable to draw any profit from them for relating himself to the same future. I now knew that he would continue to go on, day after day, swearing that he was to be tortured to death that night, and so he did, giving no thought to the present or the past. Our thinking is essentially empirical; we are interested in facts only insofar as we can use them as a basis for planning the future. This carry-over from past and present into the future was completely lacking in him; he did not show the slightest tendency to generalize or to arrive at any empirical rules. When I would tell him, “Look here, you can believe me when I assure you that nothing is threatening you —so far, my predictions have always been fulfilled/\* he would reply, “I admit that so far you’ve always been right, but that doesn’t mean that you’ll be right tomorrow.” This reasoning, against which one feels so futile, indicated a profound disorder in his general attitude toward the future; that time which we normally integrate into a progressive whole was here split into isolated fragments.**

처음 환자와 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나는 환자의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날 밤에 자신이 확실히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 나 또한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되면 그의 모든 두려움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그도 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리고 그다음 날까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삼사일 후에 나는 희망적인 태도를 버렸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저 나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빠르게 미래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을 뿐이다. 반면에 그는 동일한 사실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같은 미래에 대해 어떠한 추론도 할 수 없이 그저 그러한 사실들을 지나가게 놔두었다. 이제 나는 그가 과거나 현재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밤 자신이 고문당해 죽을 것이라고 맹세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실증적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들을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 관심을 둔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되는 연속성은 그에게 전혀 없었다. 그는 일반화하거나 어떠한 실증적 규칙에 도달하려는 경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예측은 항상 맞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설득할 때면 저를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당신이 항상 옳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일도 옳을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자리하는 깊은 장애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체로 통합되어 경험하는 시간은 여기서는 고립된 단편들로 쪼개져 있었다.

**One objection may well be raised at this point: isn’t the disorder pertaining to the future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delusional belief that execution is imminent? Here lies the crux of the problem. Could we not, on the contrary, suppose that the more basic disorder is the distorted attitude toward the future, whereas the delusion is only one of its manifestations? Let us consider it more closely.**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장애는 곧 자신이 처형될 것이라는 망상적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더 근본적인 장애이며, 망상은 그러한 장애의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 가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What exactly was our patient’s experience of time, and how did it differ from ours? His conception might be more precisely described in the following way: monotonously and uniformly, he experienced the days following one another; he knew that time was passing and, whimpering, complained that “one more day was gone.” As day after day went by, a certain rhythm became evident to him: on Mondays, the silver was polished; on Tuesday, the barber came to cut his hair; on Wednesday, the gardener mowed the lawn, etc. All of which only added to the waste which was his due —the only link which still connected him to the world. There was no action or desire which, emanating from the present, reached out to the future, spanning the dull, similar days. As a result, each day kept an unusual independence，failing to be immersed in the perception of any life continuity; each day life began anew, like a solitary island in a gray sea of passing time. What had been done, lived, and spoken no longer played the same role as in our life because there seemed to be no wish to go further; every day was an exasperating monotony of the same words, the same complaints, until one felt that this being had lost all sense of necessary continuity. Such was the march of time for him.**

환자의 시간 경험은 정확히 어떠했으며,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가? 그의 시간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보다 정확하게 기술될 수 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균일하게 이어졌으며 그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인지했다. ‘또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그는 신음하며 불평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에게도 일정한 리듬이 분명해졌다: 월요일에는 은제품을 닦고, 화요일에는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러 오며, 수요일에는 정원사가 잔디를 깎는 등.이러한 일과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자기가 먹어야할 잔여물에 추가 될 것 이었고, 이러한 생각만이 그를 세상과 연결하게 해주는 유일한 고리였다. 그에게는 현재에서 비롯되어 미래로 향하는 어떠한 주체적 행동이나 욕망도 없었고, 단조롭고 유사한 날들을 잇는 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각 날은 서로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그는 어떠한 삶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 하루하루가 회색의 시간 바다에 고립된 섬처럼 새로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미래로 향하는 삶의 활력 없이 행해진 일, 경험한 것, 말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 매일이 같은 말, 같은 불평의 답답한 단조로움으로 채워졌고, 우리는 그의 존재가 삶에 필요한 연속성의 모든 감각을 상실했다고 느낄 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하는 시간의 행진이었다.

**However, our picture is still incomplete; an essential element is missing in it —the fact that the future was blocked by the certainty of a terrifying and destructive event. This certainty dominated the patient’s entire outlook, and absolutely all of his energy was attached to this inevitable event. Although he might pity his wife and children for the atrocious fate that awaited them, he could do no more; he could no longer follow the events of daily life, he was no more up to date and was out of tune with the fortuitous events of daily living. If he had occasion to ask about some member of the family who was ill, his attention was short-lived and he seemed unable to go beyond the most banal questions. “It’s always the same old thing,” said his wife, and he, too, was aware of this. “It sounds phony. Nothing I say to my wife rings true.” In other words, he presented the flattening of affect which we find so often in these patients.**

그러나 아직 우리의 분석은 불완전하다.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 그의 *미래가* 끔찍하고 파괴적인 사건의 확실성에 의해 *막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 확실성은 환자의 전체적인 전망을 지배했으며, 그는 이 불가피한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잔인한 운명을 애처롭게 여길 수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일상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 하지 않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상황들에 동조하지 않았다. 가족 중 아픈 사람에 관해 물어볼 때도 그의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그는 가장 평범한 질문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항상 또 그 소리야”, 라고 그의 아내가 언짢아할 때면, 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잔여 정치 망상]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진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즉, 그는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에게서 자주 발견하는 정동의 단조로움을 나타냈다.

**Such was our patient’s experience of time. How does it resemble ours and how does it differ? All of us may have similar feelings in moments of discouragement or dejection or when we believe that we are dying. Then the idea of death, this prototype of empirical certainty, takes over and, blocking off the future, dominates our outlook on life. Our synthetic view of time disintegrates and we live in a succession of similar days which follow one another with a boundless monotony and sadness. With most of us, however, these are only transient episodes. Life forces, our personal impetus, lift us and carry us over such a parade of miserable days toward a future which reopens its doors widely to us; we think and act and desire beyond that death which, even so, we could not escape. The very existence of such phenomena as the desire to “do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s” clearly indicates our attitude in this regard. In our patient, it was this propulsion toward the future which seemed to be totally lacking, leading, as a result, to his general attitude. Nor would anything be changed for him if, quieted after a certain time, he would accept the fact that his punishment would not be for that very night but for a later date, such as Bastille Day or Armistice Day. The future would still be blocked as before; his life impetus could not spring from the present toward such a distorted future.**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환자가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어떻게 유사하며 또 다른가? 우리는 모두 낙담이나 좌절의 순간, 혹은 죽음을 앞두었다고 느낄 때 비슷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죽음이라는 경험적 확실성의 원형이 우리 삶의 전망을 장악하고 미래를 차단한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은 해체되고 우리는 한없는 단조로움과 슬픔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날들의 연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태는 일시적인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삶의 활력, 우리 개인의 생활력이 우리를 들어 올려 이런 비참한 날들의 행렬을 넘어 우리에게 다시 넓게 문을 열어주는 미래로 인도한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음에도 그 너머를 위해 행동하고 생각하고 열망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환자에게는 바로 이 미래로 향하는 추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의 일반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그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차분해졌을 때 자신의 처벌이 그날 밤이 아니라 더 늦은 날 예를 들어 바스티유 공휴일이나 휴전협정의 날로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그의 미래는 여전히 이전처럼 차단되어 있고, 그의 삶의 추진력은 현재로부터 그렇게 왜곡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One might object here that, basically, this is the outlook of a person who has been condemned to death and point out that this patient reacted in this way to the delusion that he and his family were to be executed. I doubt this, although I have never seen anyone under a death sentence. Of course, I accept that this picture corresponds to that idea which we have of the feelings of someone in a death cell; but don’t we draw this idea from ourselves? Don’t we feel this way because all of us occasionally realize that we are sentenced to die, especially in those moments when our personal impetuses weaken and the future shuts its door in our face? Isn’t it possible to admit that the patient’s outlook is determined by a similar weakening of this same impetus, the complex feeling of time and of living disintegrating, with a subsequent regression to that lower rung which we all latently possess? Looked at in this light, a delusion is not something which is simply an outgrowth of phantasy but, rather, is a branch grafted onto a phenomenon which, as part of all of our lives, comes into play when our life synthesis begins to weaken. The particular form of the delusion, in this case the belief in execution, is only an effort made by the rational part of the mind (itself, remaining intact) to establish som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various sections of a crumbling edifice.**

독자들은 여기서 하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관점이며, 이 환자가 자신과 그의 가족이 처형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나는 이러한 관점이 의심스럽다. 물론, 위의 분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때때로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특히 개인의 삶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미래가 우리 앞에서 문을 닫을 때, 우리는 환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가? 환자의 관점은 이와 유사한 삶의 추진력의 약화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과 삶에 대한 복합적인 느낌이 해체되어 우리가 모두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낮은 단계로의 회귀가 뒤따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망상은 단순히 환상에서 돋아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 삶의 종합적 통합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작동하는 현상에 이식된 가지라 할 수 있다. 망상의 특정 형태, 이 환자의 경우 처형에 대한 믿음은, 자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심리체계의 여러 부분 사이에 일종의 논리적 연결을 확립하려는 (아직 온전히 남아 있는) 정신의 합리적 부분에 의한 노력에 불과하다.

**Let us see whether or not we can look at the other delusions of this patient in the same light, beginning with his delusions of persecution. The personal impetus is a determining factor in more than just our attitude with regard to the future; it also rules over our relationship with our environment and thus participates in that picture which we have of that environment. In this personal impetus, there is an element of expansion; we go beyond the limits of our own ego and leave a personal imprint on the world about us, creating works which sever themselves from us to live their own lives. This accompanies a specific, positive feeling which we call contentment—that pleasure which accompanies every finished action or firm decision. As a feeling, it is unique and has no exact negative counter­ part where actions are concerned. In life, if we place contentment at the positive pole, that phenomenon which most closely approaches the negative pole is sensory pain. This latter, as we know,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factors in determining the structure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bout us; intrinsically bound up in pain is the feeling of some external force acting upon us to which we are compelled to submit. Seen in this light, pain evidently opposes the expansive tendency of our personal impetus; we can no longer turn ourselves outward, nor do we try to leave our personal stamp on the external world. Instead, we let the world, in all its impetuousness, come to us, making us suffer. Thus, pain is also an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Usually brief, even momentary, it becomes lasting when it no longer meets and is counteracted by its antagonist, the individual’s life impetus.**

이 환자의 다른 망상들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는지 그의 박해 망상부터 확인해 보자. 개인적인 삶의 추진력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이는 우리의 환경을 인식하는 데도 관여한다. 이러한 개인적 추진력은 확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외부 세계에 개인적인 족적을 남기며, 우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사는 작품들을 창조해 낸다. 이는 모든 완성된 작업이나 확고한 결정을 내린 후에 우리가 만족이라고 부르는 긍정적인 느낌을 동반한다. 이러한 느낌은 독특하며 이것에 연관된 행동에 일치하는 정확한 부정적 대응물은 없다**.** 삶에서 만족을 긍정적 극점에 놓을 수 있다면, 가장 부정적 극점에 가깝게 자리하는 현상은 감각적 고통일 것이다.우리가 알다시피, 이 후자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고통에는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어떤 외부 힘이 작용하는 느낌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고통은 분명히 개인적 추진력의 확장 경향에 반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지 않고 외부 세계에 개인적인 자취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할 때 우리는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성급하게 닥쳐와 고통을 주도록 내버려둔다. 따라서 고통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보통 짧지만,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일 때에도 삶의 추진력이라는 적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때 상쇄되지 않고 지속된다.

**When this latter fades, all of that world we live in seems to throw itself upon us, a hostile force which can only bring suffering. This is the reflection of a particular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that, usually submerged by other attitudes, paints the entire universe in different colors when it emerges to rule the person. My patient would say, “Everything will be cut off of me except just what is necessary in order for me to suffer.” He was aware only of pain and constructed every relationship with the external world exclusively on the model of this phenomenon of sensory pain.**

이러한 개인적 삶의 추진력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오직 고통만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적대적인 힘으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특정한 태도의 반영으로서 보통 다른 태도들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이 태도가 개인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면 한 개인의 온 세계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채색해낸다. 그는 “제가 고통받기 위해 필요한 것만 남겨지고 저의 모든 것이 잘려 나갈 겁니다”라고 나에게 얘기했다. 그는 오직 고통만을 인식했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오로지 이러한 감각적 고통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했다.

**It was against this hostile background that shadows came and went — silhouettes of other persons, of things, and of events. They were really only bas-reliefs growing out of the background. “Everything, everything turns against me,” the patient whimpered. “Opposites all mean the same thing: the silence here makes me think of the dap and violent hatred of the people; the noise which those workers make outside reminds me of the nail that will be driven in my head; the most natural things are the most dangerous. How clever and infamous their scheme is. All one has to do is continue doing what one has always done—washing, combing one’s hair, eating, going to the toilet—and all this will be turned against me.” Everything spoke “the same clear and precise language”; black and white meant the same thing; everything was directed against him to make him suffer.**

이러한 적대적인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그가 얘기하는]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사건들의 그림자들이 오고 갔다. 실제로 이것들은 그가 처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부조에 불과했다. “모든 것, 세상 모든 것들이 저를 적대합니다”라고 그는 흐느꼈다. “정반대의 모든 것들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사람들의 요란하고 격렬한 증오를 떠올리게 하고, 바깥의 일꾼들이 내는 소음은 제 머리에 박힐 못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들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속해 왔던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씻고, 머리를 빗고,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로’ 같은 말을 했고, [정반대의 것들, 예를 들어] 검은색과 흰색은 같은 뜻을 내포했다. 모든 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에게 적대적으로 향해있었다.

**Here, again, he could not advance from a simple fact to a generalization. His attitude determined a precise picture of the universe which, then, was reflected on all the environment. Men were no longer perceived as individuals with their personal and individual values but became pale, distorted shadows moving against a backdrop of hostility. These were not living men who were persecuting him but men who had been transformed into persecutors and were no more than that. All the complex psychic life of human beings had disappeared; they were only schematic mannequins. All idea of chance, coincidence, of unintentional or unconscious acts was wiped out for the patient. The smallest bit of thread had been purposely laid in his way; horses were in on the plot and deliberately excreted beneath his window; the cigarette smoked by a passer-by was a signal; a failure of the electricity was caused so that people would light candles and that many more “remains” would be stuffed down him.**

여기에서도, 그는 단순한 사실에서 일반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의 태도는 세계가 정확히 어떠한지 결정했고, 이것은 환자가 처한 자신의 환경 전체에 반영되었다.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각자 독특한 가치를 지닌 개별자로서 더 이상 인식되지 않았고, 적대적인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움직이는 창백하며 왜곡된 그림자로 변모하였다. 그를 박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개별자들이 아니라 박해자로 변형된 무엇,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었다. 인간이 가지는 복잡한 심리적 생활은 [환자의 관점에서] 사라졌고, 개별자들은 단지 도식적인 마네킹들일 뿐이었다. 환자에게는 우연, 일치, 무의식적 또는 무심코 행해진 행동이라는 개념들이 지워졌다. 가장 작은 실 조각도 그가 걷는 길에 고의로 놓인 것이었고, 말들도 그에게 짜인 음모에 가담하여 그의 창문 아래에서 고의로 배설을 한 것이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피우는 담배는 신호였고, 전기가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게 하여 더 많은 ‘잔여물’을 그에게 쑤셔 넣기 위해 일부러 일어난 일이었다.

**His thinking no longer was concerned with the usual value of an object, nor did he clearly delimit each one of them. An object was only a representative of the whole and his mind went beyond its particular meaning in ever-extending arcs. The address-band of his newspaper made him think, of all the bands of all the copies of that paper which are distributed every day, which led him to all the address-bands of all the newspapers of France. A member of his family had a bronchitis and expectorated; the patient began to speak of all the sputum of all the tuberculosis sanitaria in the country and then went on to all the leavings of all the hospitals. When I shaved in front of him, he spoke of the soldiers in a nearby barracks who also shaved and then included all the soldiers of the army. “The minute that I do something,” he confided while washing himself, “I must remember that forty million others do the same.”**

그의 생각은 더 이상 물체의 일반적 가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는 더 이상 각각의 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물체는 어느 총체를 표현하는 대표자에 불과했으며 그의 정신은 물체의 특정한 의미를 넘어서 계속 확장되는 원호를 그려나아갔다. 그의 신문에 묶여있는 주소 띠는 매일 배포되는 그 신문 복사본의 모든 띠를 생각나게 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의 모든 신문의 모든 주소 띠로 이어졌다.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기관지염에 걸려 가래를 뱉을 때면 환자는 나라의 모든 결핵 요양소의 모든 가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병원의 모든 잔여물을 얘기했다. 내가 그 앞에서 면도할 때면, 그는 근처 병영의 병사들도 면도한다고 말했고 이내 모든 군대의 병사들을 포함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는 세수하면서 자신에게 말했다, “4천만 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Let us remember here his way of searching to enumerate all the things which, one day, would be put into his belly. Perhaps one day we will be able to explain the genesis of delusions of enormity along these lines. Wha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us at this point is the idea that the patient’s mind had lost the ability to stop and fix itself at each object’s boundaries but — as he said himself —had immediately to go further, gliding rapidly from the solitary object to infinity. This same sphere of immediate interest, which in the patient was spatially limitless, was temporally blocked in the future. Ours, on the other hand, is limited in space but extends endlessly into the future. The life impetus was missing in the patient and he was unable to project it onto either men or things; the individuality of external objects did not exist for him. In short, human beings and objects seemed to merge, everything speaking, to him, “the same clear and precise language.”**

여기서 환자가 자신의 배 속에 넣어질 모든 것들을 열거하려고 애쓴 점을 기억해 보자. 언젠가 우리는 이러한 선상에서 환자의 거대망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환자의 정신이 각 물체를 그것의 경계에서 멈추고 고정하는 능력을 잃었고, 그가 스스로 말했듯이, 그것은 분리된 개별 물체로부터 곧 바로 나아가서 무한대로 빠르게 이동했다는 점이다. 환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관심의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무한했지만, 시간상으로는 미래로 막혀 있었다. 반면에 우리의 관심 영역은 공간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미래로 끝없이 확장된다. 환자에게는 삶의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는 이를 사람이나 물건에 투영할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외부 객체의 개별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 있어서 인간과 물체는 융합되어 있었고, 모든 객체는 그에게 ‘동일하고 명확한 언어’를 말했다.

**Another observation may confirm this point of view. His mind not only fled toward infinity, it also decomposed every object that it met. The clock, as we have already mentioned, was not just a dock but an assemblage of instruments of torture —cogs, key, hands, pendulum, etc. Every object that he saw was like the clock.**

이러한 관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관찰이 있다. 그의 정신은 무한대로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친 모든 물체를 분해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에게 있어서 시계는 단지 시계가 아니라 톱니바퀴, 열쇠, 바늘, 진자 등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 고문 도구의 집합체였다. 그는 마주치는 모든 물체를 이러한 시계와 같이 경험했다.

**One fact must be kept in mind—as soon as he performed some action his entire attitude changed, but once the act was finished he immediately fell back into his delusions. For example, when I wanted to weigh him, this interested him. He got on the scale, shifted the weights, and correctly found his weight. However, he was no sooner finished than he began, “What use is all that? This scale is only a lot of iron and wood and all that will be put into my belly.”**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참고 해야 한다. 그는 어떤 행동을 할 때면 그의 태도 전체가 바뀌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끝나는 즉시 다시 그의 망상으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내가 그의 체중을 재고 싶어 할 때면 그는 관심을 보였다. 그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 무게추를 조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몸무게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시작했다, “이런 게 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체중계는 단지 철과 나무 덩어리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제 배속에 들어갈 것인데”.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obvious that the essential values of an object or another being—such as the aesthetic value—could not be appreciated by him; he was unable to adopt the appropriate attitude. “You see these roses?” he asked me. “My wife would say that they are beautiful but, as far as I can see, they are just a bunch of leaves and petals, stems and thorns.”**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물체나 다른 존재의 본질적 가치- 예를 들어, 미적가치-를 감상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이 장미들이 보입니까?’그가 나에게 물었다. ‘제 아내는 이것들이 아름답다고 할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이것들은 그저 잎과 꽃잎, 줄기와 가시 더미일 뿐입니다’.

**Thus, objects merged and seemed alike. Differences, always linked to the apperception of the individuality of each object, faded, and similarity was the only point of view under which they were envisaged. Thought, proceeding by analogy, discovered similarities which usually escape us as being practically unimportant; he, however, attributed great importance to them. The number of the house where we lived was the same as that of a sanitarium where he had spent a year; my pocket calendar was identical to that of one of the nurses at the sanitarium, and I paced the room just as she used to. Therefore, we must be applying the same methods here that they had used there. These similarities were discovered with amazing speed and he found them in places that it never would have occurred to us to look for them. For example, one 13th of July (the day before Bastille Day), he noticed that a pair of shorts that he put on was embroidered with the number 13 and immediately connected the two. His shirt, on the other hand, had the number 3, which also exists in 13. That year it happened that, as the National Holiday fell next to the week end, a three-day holiday had been declared. All of this proved that he and his family were to be executed on Bastille Day. Hundreds of similar examples could be given.**

개체들은 서로 융합되어 비슷하게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 각 물체의 개체성을 인식하는 것과 항상 연결된 상이성들은 사라졌고, 유사성이 그가 그것들을 [물체의 개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 되었다. 유사성을 발견하는 그의 사고 과정은 보통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 해냈고, 그는 그러한 유사성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번호는 그가 일 년을 보낸 요양소의 번호와 같았고, 내 책상 달력은 요양소의 한 간호사의 것과 동일했으며, 나는 그녀와 동일한 걸음걸이를 가졌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여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그곳에서 [요양소에서] 사용했던 방식들을 따라야만 했다. 그는 이러한 유사성을 놀라운 속도로 발견하였고 우리가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7월 13일(바스티유 공휴일)에 입었던 그의 반바지에 13이라는 숫자가 수놓아진 것을 발견하고 그는 즉시 두 사실을 연결했다. 또한 그의 셔츠에는 13에도 존재하는 숫자 3이 있었고, 그해에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쳐서 3일간의 휴일이 선포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이 바스티유 공휴일 날에 처형될 것임을 증명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다.

**I think that the patient’s attitude toward other men, events, and things concords with the view that we have taken of his delusions of persecution.**

나는 환자가 타인, 사건, 그리고 사물들에 대해 갖는 태도는 우리가 그의 피해망상에 대해 가진 관점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patient’s attitude toward others cannot be understood exclusively as that of a relationship of victim and persecutor. Through all this, he nevertheless attempted to safeguard a certain communion of thought with others. Although I was seen as a murderer and an executioner, he did not run from me; on the contrary, my presence helped him to a certain extent because I knew the same things that he knew and he could, thus, speak freely with me. If I were gone for a while, he needed to tell me all the new discoveries that he had made during my absence. Any attempt that I made to object was refused by, “Go on, you know all about this just as well as I do. You know even more about it than I do.”**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환자가 타인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오로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의 교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비록 나는 그에게 살인자이자 사형집행자로 보였지만, 그는 나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그가 아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으며 나의 존재는 어느 정도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는 내가 없는 동안 발견한 모든 새로운 사실들을 나에게 알리려 했다. 그는 나의 어떠한 이의 제기 시도를 ‘계속하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저만큼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거절했다.

**In summary, we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dividual life impetus weakening, the synthesis of the human personality disintegrates; those elements which go to make up the personality acquire more independence and act as entities; the feeling of time breaks up and is reduced to a feeling of a succession of similar days; the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is determined by the phenomena of sensory pain; there remains only the person face to face with a hostile universe; the objects found in the environment insert themselves between the person and the hostile universe and are interpreted in consequence; the intellect translates this as all men being persecutors and all inanimate objects, instruments of torture. Thus, delus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only as the products of a morbid imagination or distortions of judgment; on the contrary, they represent an attempt to translate the new and unusual situation of the disintegrating personality in terms of prior psychic mechanisms.**

요약하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개인의 삶의 추진력의 약화로 자아의 통합이 붕괴되고,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자 독립성을 획득하여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 시간에 대한 감각은 파괴되어 비슷한 날들의 연속으로 환원된다. 환경에 대한 태도는 감각적 고통의 현상에 의해 결정되고 오로지 적대적인 세계와 맞서는 개인만이 남게 된다. 주변 환경에서 발견되는 물체들은 개인과 적대적인 세계 사이에 스스로 끼어들어 그에 따라 해석된다. 이러한 지성은 모든 인간을 박해자로 모든 물체를 고문 도구로서 해석한다. 따라서 망상은 단순히 병적인 상상의 산물이나 판단의 왜곡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것은 해체되는 자아의 새롭고 이례적인 상황을 기존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를 대변한다.

**No matter how delusional the patient was, it seems difficult to admit that he would simply fancy such absurd and nonsensical thoughts as those that he constantly expressed. Wouldn’t it help our thinking to assume that at the base of these ideas we will always find a natural phenomenon which has been more or less modified and, following a disintegration of the personality, has acquired an unusual independence? The patient attempts to express this situation by borrowing thoughts from his former life and, thus, ends by expressing delusional material. We then come along and augment this chasm by accepting the content of the verbalizations, seeing them only as aberrations of his imagination or his judgment.**

환자가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혔든, 그가 지속해서 표현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단순히 기우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생각의 기반에는 어느 정도 변형되었을 수도 있지만, 자아의 붕괴 이후에 보통과는 다른 독립성을 획득한 자연적인 현상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를 돕지 않을까? 환자는 이전의 삶에서 가져온 생각들을 빌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려 하므로, 결국 망상적인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의 분석이 망상적인 내용에 국한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간극을 받아들임으로써 확대하고 그의 말의 내용을 단지 그의 상상력이나 판단의 일탈로만 보게 된다.

**So far, these are only suggestions. Perhaps it will be possible to continue along the same lines and, in so doing,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ose phenomena which go to make up mental illness. Meanwhile, in the same general line, I should like to add a few more points relative to the same patient.**

이러한 점들은 아직 제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정신 질환을 구성하는 현상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환자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더하고자 한다.

**He expressed delusions of total ruin. Should we interpret the와 as ideas which just came to him? Does the depressive state alone explain the genesis of such thoughts? Sadness and emotional suffering, it would seem to us, could be attached to various other objects without giving rise to such bizarre and unrealistic feelings. Perhaps we would be closer to the truth if we conceived of such a feeling of ruin as translating what in everyday thinking is a distortion of the possession phenomenon, the phenomenon of that which is our own.(1) This sense of property is an integral part of our personality. As we have said, there i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it and desire; we never wish for that which we already have and, on the other hand, the fulfillment of a desire in one way or another enlarges the sphere of our own possessions. Desire, in going beyond possession, always limits the boundaries of the latter. Wherever our life impetus and, conjointly, our desire dies, not only is the future shut off but also the boundaries of our possession-sphere disintegrate. The phenomenon of possession is disturbed and our ability to attribute something to ourselves is affected and altered. The person translates this both to himself and to others when he says that he is broke.(2) Ideas of negation, patients’ complaints that they no longer have a stomach, intestines, or a brain, are perhaps only their way of expressing the same situation.**

그는 완전한 파산에 대한 망상을 표현했다. 이런 생각들을 그에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로 해석해야 할까? 우울한 상태로만 이러한 생각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 슬픔과 감정적 고통은 다양한 다른 대상들의 붙을 수 있지만 [인식에 관여할 수 있지만],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일상적 사고에서 소유라는 현상의 왜곡, 즉 무엇인가가 우리의 것이라는 현상의 왜곡을, 환자는 파산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1]](#footnote-1).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 자아에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말했듯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상과 욕망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며, 반면에 욕망의 충족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소유 영역을 확장한다. 소유를 넘어서는 욕망은 항상 소유 영역의 한계선을 그어낸다. 우리의 삶의 활력과 욕망이 죽어가는 곳에서는 미래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영역의 경계도 붕괴한다. 소유의 현상은 교란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능력은 영향을 받아 변형된다.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자신이 파산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감정을 해석하고 표현한다[[2]](#footnote-2).자신의 소화기관이나 뇌가 더 이상 없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의 부정의 생각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We may develop an analogous conception with reference to feelings of guilt. Here, too, the analysis of those phenomena which are the essentials of a human personality leads us to findings which seem to shed light on the genesis of such feelings. We must repeat our previous remarks concerning the asymmetry between good and evil. Once an error is made or a bad action committed, it remains engraved in the conscience, leaving palpable trace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static and a backward glance is enough to uncover it. On the other hand, the only remains of positive accomplishments or good acts is in the fact that we can do better in the future; such acts are really no more than bridges that we cross in our attempts to improve. Our entire individual evolution consists in trying to surpass that which has already been done. When our mental life dims, the future closes in front of us, while at the same time the feeling of positive actions of the past disappears. An intact memory remains, but everything is dominated by the static feeling of evil. Our patient would say that he was the world’s greatest criminal, and he would see “concretized remorse” everywhere.**

우리는 죄책감에 관해서도 유사한 개념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인간 자아의 본질을 이루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감정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발견들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기서 선행과 악행 사이의 비대칭에 관한 우리의 이전 논평을 반복해야 한다. 실수를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저지를 때면, 이것들은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이러한 잘못들은 정적이며 [자신을] 뒤돌아볼 때 쉽게 드러난다. 반면에 긍정적인 성취나 선행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일한 흔적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리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시도할 때 건너는 다리에 불과하다. 우리 자아의 총체적인 발전은우리가 이미 이루어낸 것을 초월하려는 시도에 있다. 우리의 정신생활이 어두워지면, 미래는 우리 앞에서 닫히고 동시에 과거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감정은 사라진다. 기억은 온전하지만, 모든 것이 악의 정적인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 환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자라고 말하였고, 그는 어디에서나 ‘구체화한 후회’를 보았다.

**Perhaps, by more dose study of those phenomena which make up the life of a human being, we may eventually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ysterious manifestations of mental illness. It is toward this goal that we have set our sights.**

아마도 우리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현상들에 대한 더욱 밀접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 질환들의 신비로운 발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1. 1. IE. Minkowski, Le Temps Vecu, p. 117 [↑](#footnote-ref-1)
2. 2. 이 지점에서’가난한 (poor)’이라는 단어가 ‘불행한 (unhappy)’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 아닐 때에도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할때 ‘불쌍한 사람 (poor)’ 이라고 말한다. [↑](#footnote-ref-2)